

## 〈조신(調信)〉의 의미 지향

– 불교적 사유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Seeking the Meaning of 〈Joshin〉 – focusing on the relevance of Buddhist Reason –

---

저자 (Authors)	김영호 Kim, Young-ho
출처 (Source)	<a href="#">우리말글 68</a> , 2016.3, 167-204 (38 pages) <a href="#">URIMALGEUL :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68</a> , 2016.3, 167-204 (38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우리말글학회</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4706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47065</a>
APA Style	김영호 (2016). 〈조신(調信)〉의 의미 지향. 우리말글, 68, 167-20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3 10:0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조신(調信)>의 의미 지향

-불교적 사유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김 영 호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 < 차례 >

1. 들어가며
  2. <조신>의 구성과 의미
  3. <조신>과 불교적 사유
  4. 나가며
- <참고문헌>

## <국문 요약>

본고는 <조신>의 의미와 그 지향하는 바를 보다 세밀하게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조신>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해소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그에 따르면 삶의 고통은 인간 내면의 본원적 욕망에 원인이 있다. <조신>의 서사는 애욕으로부터 고통이 연속,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안에서 구조적 모순과 같은 외부의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보다, 문제의 상황이 인물의 내면에서 기인한다고 보아 그로부터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조신>의 특징이다. 당대 사회문화의 지평 안에서 <조신>은 내면을 성찰해 부정적인 자기를 확인하는 깨달음으로 보편적 고통을 종식하려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불교적 사유와 <조신>의 의미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공사상에 의하면 세속의 고통이 해탈, 열반과 구분되지 않으며, 그 대립을 초월한 인식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를 깨닫는 것으로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조신>이 지향하는 의미는 세속을 부정하는 초월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한다. 그 깨달음은 욕망과 대상, 그에 대한 집착 등이 무상(無常)하고, 그

주체인 자아도 지속될 수 없는 무아(無我)임을 인식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를 토대로 한 나와 나의 것으로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각성이 곧 해탈에 이르는 조건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조신>은 개인을 넘어 타자와 현실의 문제에 참여해 해결을 모색하는 의미 또한 내재한다.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는 자비(慈悲)의 실천이 현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신>은 공감과 실천을 현실의 문제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주제어: 조신, 불교, 공사상, 무아, 자비

## 1. 들어가며

『삼국유사(三國遺事)』 소재의 <조신(調信)>은 문예적 가치와 환몽구조라는 독특한 서사로 일찍부터 주목받아왔다. <조신>을 둘러싼 기존의 연구는 실로 다양하지만 접근의 관점과 목적, 방법론에 따라 몇 가지 흐름을 개관해 볼 수 있다. 먼저 환몽의 서사에 주목하여,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유사한 설화, 전기(傳奇) 등과 <조신>의 영향관계 및 변별성, 의미를 살핀 일련의 비교문학적 관점의 연구<sup>1)</sup>가 있다. 그리고 소설의 발생 문제와 관련해 <최치원(崔致遠)>, <김현감호(金現感虎)> 등과 <조신>을 설화 또는 전기에 귀속시키는 갈래 규정에 대한 연구<sup>2)</sup>가 연구사의 큰

- 1) 정규복(1965), 「幻夢說話考」, 『아세아연구』 8-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정범진(1965), 「枕中記研究-특히 三國遺事 調信說話와 關聯하여-」, 『대동문화연구』 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차용주(1969), 「調信說話의 比較研究」, 『한국문화인류학』 2-1, 한국문화인류학회; 김광순(1991), 「韓·中文學에 나타난 꿈의 受容樣相과 意味志向-調信傳과 枕中記를 中心으로-」, 『동방한문학』 7, 동방한문학회; 이동근(1998), 「<침중기>·<조신전>·<만복사저포기>의 기술방법 비교연구」, 『어문학』 63, 한국어문학회; 정환국(2004), 「나말여초 傳奇의 ‘육망의 형식화’에 대하여-초기소설의 성립과정에 주목하여-」, 『한문학보』 11, 우리한문학회.
- 2) 지준모(1975), 「傳奇小說의 嚆矢는 新羅에 있다-<調信傳>을 해부함-」, 『어문학』 32, 한국어문학회; 조동일(1977),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임형택(1980), 「羅末麗初의 ‘傳奇’文學」, 『한국한문학연구』 5, 한국한문학회; 김종철

흐름을 이룬다. 이러한 시각에서 문학사 내지 소설사에서 <조신>이 갖는 위상과 의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축적되었다. 또한 <조신>을 같은 조(條)의 서사<sup>3)</sup>, 『삼국유사』에 함께 실린 서사<sup>4)</sup>, 같은 갈래 혹은 영향관계에 있는 서사<sup>5)</sup>와 견주어 의미를 이해하는 다채로운 연구들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 본 연구 성과에서는 통시적 내지 공시적 관점에서 <조

(1988),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문제」, 다국 이수봉선생 회갑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박일용(1993), 「소설의 발생과 《수이전》 일문의 장르적 성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사실과 낭만의 소설사적 전개양상』, 집문당; 김종철(1995), 「고려 傳奇小說의 발생과 그 행방에 대한 再論」, 『어문연구』 26, 어문연구학회; 박희병(1995), 「羅麗時代 傳奇小說 研究」,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윤채근(1999),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출판사; 광정식(2000), 「<調信傳>의 갈래규정」, 『논문집』 21-2, 경성대학교; 조태영(2001), 「傳奇的 세계관과 양식 특질」, 『국문학연구』 5, 국문학연구회; 소인호(2005), 『한국 전기소설사 연구』, 집문당; 오대혁(2006), 「나말여초 傳奇小說의 형성문제-불교계 전기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4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김진영(2009), 「佛敎敍事의 作話方式과 傳奇小說의 相關性(Ⅱ)」, 『어문연구』 61, 어문연구학회.

- 3) 유광수(2000), 「만남과 깨달음으로 본 <洛山二大聖 觀音·正趣, 調信>의 의미」, 『연세어문학』 32,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연우(2001), 「『三國遺事』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의 분석적 이해」, 『한국민속학』 33, 한국민속학회; 신연우(2002), 「曹洞五位의 시각으로 본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의 이해」, 『한국사상과 문화』 18, 한국사상문화학회; 조현우(2005),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의 은유적 이해」, 『한국고전연구』 11, 한국고전연구학회; 김정경(2009),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조의 연구: 「조신」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2-4,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엽(2012), 「『三國遺事』 「洛山二大聖觀音 正趣調信」條의 삽화 구성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36, 열상고전연구회.
- 4) 이강옥(2001), 「『삼국유사』의 세계관과 서술미학」, 『국문학연구』 5, 국문학회; 정소영(2006), 「『삼국유사』설화에 나타난 인간구원-광덕과 엄장,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조신설화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양승목(2014), 「『삼국유사』 속 꿈 화소의 활용 양상과 「조신」의 위상」, 『동양한문학연구』 39, 동양한문학회.
- 5) 조현우(1999), 「夢遊서사의 現實 認識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령(2005), 「환상공간으로서의 ‘꿈’의 기능」, 『인문학연구』 3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강상순(2009), 「나말여초 전기에 형성된 사랑의 형식과 그 역사적 의미」, 『우리어문연구』 35, 우리어문학회; 신재홍(2009), 「<김현감호>와 <조신>의 비극적 삶과 치료적 글쓰기」, 『문학치료연구』 13, 한국문학치료학회.

신>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다소 변별적으로 텍스트의 해석 및 의미의 이해에 중점을 둔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가 있으며, 본고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조신>의 구성과 의미를 미시적으로 살피고, 그 지향하는 바를 구명(究明)하는 데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로 임철호<sup>6)</sup>와 설성경<sup>7)</sup>은 <조신>이 불교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며, 특히 공사상과 관음신앙이 서사의 의미에 중심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윤석<sup>8)</sup>은 종교적 영험보다 인간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를 다룬 데서 <조신>의 문학적 가치를 찾았다. 세밀한 분석이 돋보이나, 텍스트에 불교적 요소의 비중이 적다고 보는 데는 이른바 보편성과 불교적 특수성의 구분이 해석에 앞서 전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조신>을 전기소설로 보는 입장에서 채용복<sup>9)</sup>이 애정 갈등과 경제적 궁핍을 반영된 현실 문제로 강조하였고, 이구의<sup>10)</sup> 역시 텍스트에 그려지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전기적인 특색으로 지적하였다. 이렇게 전기 혹은 소설로서의 성격에 주목하는 논의는 텍스트의 불교적 의미를 현실 도피나 부정적 세계관이라 보기도 하는데, 그 배경에는 역사적 발전 단계라는 거시적 관점이 있지 않은가한다. 그리고 김용철<sup>11)</sup>은 <조신>에서 깨달음이 갖는 현실 대응의 성격과 실천의 의미를 주목하고 당대 사회상의 문제와 함께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또한 오대혁<sup>12)</sup>은 <조신>에 설화, 전기, 변문(變文)의 특성이 혼재해 있으며, 관음신앙과 함께

- 
- 6) 임철호(1976), 「調信說話 研究」, 『연세어문학』 7·8,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7) 설성경(1993), 「조신이야기의 서술구조 분석」, 전규태 교수 회갑기념문집 간행위원회, 『한국문학의 통시적 성찰』, 백문사.  
8) 이윤석(1988), 「調信설화의 문학적 가치에 대한 소고」, 『한국전통문화연구』 4,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9) 채용복(1988), 「調信構造의 分析的 考察」, 『어문학』 49, 한국어문학회.  
10) 이구의(1996), 「『調信』傳의 構成과 意味」, 『한민족어문학』 30, 한민족어문학회.  
11) 김용철(1995), 「<조신>에서 깨달음의 실천지향과 변증법적 삼단구조」, 『한국학연구』 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2) 오대혁(1998), 「『調信傳』의 구조와 형성배경」, 『한국문학연구』 2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원.

유식학(唯識學)을 비롯한 불교적 인식, 이면의 사회비판 의식이 공존한다고 하였다. 한편, 정규식<sup>13)</sup>이 타자로부터 소외된 분열된 주체가 대상으로 무소유를 추구하는 것으로, 강유환<sup>14)</sup>은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자아실현 과정으로 독특하게 <조신>을 읽어내기도 했다.

보통 <조신>의 의미는 세속적 삶의 고통과 무상(無常)에 느끼는 환멸, 염리심(厭離心)을 품고 불도에 정진하는 초월의 추구로 이해된다. 일면 타당한 독해이긴 하지만 세속과 초월, 현실과 관념 등으로 구분되는 대립적 인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상론(詳論)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조신>은 그러한 변별을 지양하는 의미 또한 내재하고 있기에, 이에 주목할 필요성이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조신>을 불교의 종교이념을 제시하는 텍스트로 보아 문제의 관념적 해결, 미흡한 현실 인식과 대응 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도 <조신>이 지향하는 의미의 일부가 간과된 면이 없지 않은데, <조신>이 어디까지나 현실을 토대로 문제적 상황과 삶의 방식에 대해 당대의 맥락 안에서 고민한 결과로 만들어진 이야기로 읽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입장에서 내려지는 관념, 현실, 종교, 신비 등의 판단이나 규정에 앞서서 텍스트에서 지향하는 삶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고에서는 먼저 문면에 집중해서 <조신>을 읽어봄으로써, 텍스트가 그려내는 인간과 세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의미를 상세하게 고구(考究)하고자 한다. <조신>이 현실의 부정적 상황을 그리고 있음은 새삼스러운 언급이 아니다. 하지만 텍스트에서 더욱 중요한 지향점은 그러한 부정성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서사로 형상화된 문제적 상황과 해결의 양상,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아야

---

13) 정규식(2004), 「『調信』의 주체와 무소유」, 『국어국문학』 23,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4) 강유환(2008), 「자기원형의 발견과 자아실현의 길-분석심리학으로 읽은 『조신 설화』-」, 『국제어문』 42, 국제어문학회.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서사와 불교적 사유가 맺고 있는 연관성,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해 고찰해보려 한다. 이는 무엇보다 <조신>에서 제기하는 문제와 해결의 모색이 불교의 지평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조신>이 불교라는 종교와 사상을 문화적 토대로 하며, 그렇기에 불교적 사유를 강하게 의미화하고 있다는 데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신>을 당대의 불교적 맥락에서 구성된 텍스트로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해석으로 창작 및 수용의 맥락에 보다 근접한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 2. <조신>의 구성과 의미

『삼국유사』 탑상편(塔像篇)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조(條)는 의상(義湘)과 원효(元曉), 범일(梵日), 아행·결승(阿行·乞升), 조신(調信)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수록하고 있다. 이들은 낙산을 공통된 공간적 배경으로 하면서, 앞의 네 이야기는 인물의 시대적 순서대로 고려조의 아행과 결승의 일화까지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마지막 <조신>은 다시 신라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서사로 해당 조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sup>15)</sup> 그리고 <조신>의 이야기 구성은 꿈을 중심으로 ‘꿈 이전-꿈-꿈 이후’의 세 단계로 구분되는 환몽구조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조신><sup>16)</sup>의 서사를 꿈 이전과 꿈, 꿈 이후의 세 단

---

15) 이외에도 보살인 관음, 정취와 조신을 병치한 해당 조의 제목, <조신>에만 부가된 편저자 일연의 논찬 등이 <조신>이 변별적으로 구성된 서사로 존재했음을 방증한다. 일연은 선재(先在)하던 조신의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조신>의 서사와 의미가 작가로서의 일연 혹은 그가 편집한 해당 조에 전적으로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 또한 있다. 그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함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창작, 수용된 텍스트로 <조신>을 읽는 일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읽어가도록 하겠다.

꿈 이전

- (1) 옛날 신라가 서울일 때 세달사(世達寺)의 장사(莊舍)가 명주 내리군(榛李郡)에 있었는데, 본사(本寺)에서 조신을 보내어 관리하게 했다.
- (2) 조신이 장사에 와서 태수 김흔(金昕)공의 딸을 좋아하여 깊이 빠졌다.
- (3) 여러 번 낙산사의 대비(大悲) 앞에서 여인과 맺어지기를 몰래 빌었다.
- (4) 몇 년이 지나 여인에게 배필이 생겼다.
- (5) 조신은 불당에서 대비가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며 울다 지쳐 잠시 잠이 들었다.<sup>17)</sup>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조신은 승려의 신분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통상적인 의미처럼 불도의 수행에 정진하는 불승의 형상을 지니지는 않는다. 그는 사찰 소유의 장원(莊園)을 관리하는 지장(知莊)으로 파견되어 토지 경영 및 재산의 유지, 증식의 임무를 부여받는다. 이는 공간의 이동과 더불어 인물이 처한 외적 조건과 환경이 변화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욕망을 가능한 배제해야만 하는 탈속(脫俗)의 공간에 속해 있던 조신은 물질적 부(富)에 연루된 세속적 공간으로 옮겨가, 타율적 계율의 구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병행하여 인물에 잠재해 있던 본원적 욕망이 촉발된다. 태수의 딸과 조우한 조신은 그녀에게 연정을 품게 되고, 애정의 성취를 여러 해 동안 몰래 낙산사의 대비상에 기구(祈求)한다. 관음에게 세속적

16) <조신>의 번역은 다음의 논저를 참고하였다. 강인구 외(2003), 『(譯註) 三國遺事 III』, 이회문화사, 252~257쪽; 이가원·허경진 역(2006), 『삼국유사』, 한길사, 300~303쪽; 장예준(2014), 「『三國遺事』 소재 <調信>의 교과서 번역 검토」, 『한국문화』 6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12~141쪽.

17) “昔, 新羅爲京師時, 有世達寺之莊舍, 在溟州榛李郡, 本寺遣僧調信, 爲知莊. 信到莊上, 悅太守金昕公之女, 惑之深, 屢就洛山大悲前, 潛祈得幸, 方數年間, 其女已有配矣, 又往堂前, 怨大悲之不遂己, 哀泣至日暮, 情思倦憊, 俄成假寢, (…).” <조신>의 원문은 다음의 교감본에서 옮긴 것으로 편의를 위해 원주(原註) 등은 다소 가감하였다. 장효현 외(2007),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1: 傳奇小說』,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3~15쪽.

인 욕망의 해결을 기원하는 조신의 행위는 불승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 여기서 조신의 모습은 구도자로서 승려라는 신분과 달리 애정으로 인해 갈등과 고통을 겪는 보통의 인간에 가깝게 그려진다.

그러나 자신의 애정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대신에 조신은 초월적 존재라 할 관음에게 그것을 기탁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에 대해 신분의 장벽이 현실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 보기도 한다.<sup>18)</sup> 신분의 차이로 인해 금지된 애정 문제의 해결을 부득이하게 초월적 힘에 의지해서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19)</sup> 그렇지만 국가적 종교, 문화의 중심에 불교가 있었던 신라사회에서 승려의 신분이 그렇게 낮은 위상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20)</sup> 인물의 애정이 여기서 일종의 금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기보다는 인물의 성격과 내면적 갈등<sup>21)</sup>에 이유가 있다고 보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그리고 인물 내부의 감정, 욕망이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중생과 다를 바 없게 된 조신의 정체성은 더욱 모호해진다.

조신의 희구(希求)는 자신이 가지게 된 혹은 깨닫게 된 애욕(愛慾)의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심층의 욕망으로 성과 애정은 삶 전체를 지배할 수도 있는 강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귀(志鬼) 설화>에서는 애정 문제로 인한 내면의 갈등과 고통이 신력(神力)을 빌어서야 진압되는 꺼지지 않는 불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조신이 마주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본원적인 애욕과 그 결핍에서 기인하는 괴로움, 번뇌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수년에 걸쳐 소원을 빌었던

---

18) 임형택, 앞의 글, 95쪽.

19) 채용복, 앞의 글, 225~226쪽.

20) 인물의 행태와 당시 사회의 조건을 고려하면 조신은 상당한 재력을 갖춘 육두품에 준하는 하급 귀족 출신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신분 계급의 이러한 특징은 가설이겠으나, 적어도 꿈밖의 조신이 하층민민의 삶과는 먼 거리에 있었다는 해석은 타당한 것이다. 이기백(1986),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163~166쪽.

21) <조신>은 인간 본성에 존재하는 욕망의 문제에 관련해서 불계(佛界)와 속계(俗界)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생의 고민과 갈등, 그 해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현룡(1984), 『韓國古說話論: 三國遺事 說話를 중심으로』, 새문사, 134쪽.

것은 원초적 욕망과 고통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그 갈애(渴愛)는 오히려 더욱 심해지게 된다. 이러한 조신의 원망(願望)은 여인과의 결연이면서 동시에 마음속의 고통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애욕의 대상인 여인이 혼인하게 되어 조신의 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다.<sup>22)</sup> 비록 애욕에 깊이 몰들었다 하더라도 승려인 조신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 관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 상황은 역설적이다. 이 지점에서 조신은 불승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탈각한다고 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인물이 가진 심리적, 사회적 조건과 근거를 무화시켜 버릴 수 있는 욕망의 힘이 드러난다. 이렇게 꿈을 꾸기 이전 까지 <조신>의 서사는 인물이 지닌 욕망이 발현해 심화되다가, 결국 현실의 장애로 차단되는 상태에 이르러 내적 갈등이 극대화된 순간에 다음 단계인 꿈으로 이어진다.

꿈

- (1) 홀연히 꿈에 여인이 기쁜 얼굴로 찾아와 일찍부터 사모했으며 부부가 되고자 왔다고 한다.
- (2) 조신은 넘어질 듯 기뻐하며 함께 향리(鄉里)로 돌아갔다.
- (3) 40년을 함께 살며 다섯 자녀를 두었으나 가난하여 의식주를 마련하기 어려웠다.
- (4) 마침내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유랑걸식하며 10년을 떠돌았다.
- (5) 마침 명주 해령현(蟹嶺縣)을 지날 때 15살 된 큰 아이가 굶어 죽어 통곡하며 길가에 묻었다.
- (6) 남은 네 아이를 데리고 우곡현(羽曲縣)에 이르러 모옥(茅屋)을 짓고 살았다.
- (7) 부부가 늙고 병들어 10살 된 딸이 구걸을 다니다 마을의 개에게 물려 아파올자 부모도 눈물을 흘렸다.
- (8) 눈물을 닦던 부인이 갑자기 말하길, 이제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별을 청하였다.

22) 김광순(1990), 『韓國古小說史와 論』, 새문사, 154쪽.

- (9) 조신이 듣고 크게 기뻐하고, 부부가 아이 둘씩을 데리고 길을 떠나면서 막 헤어지려 할 때 꿈에서 깨었다.<sup>23)</sup>

꿈에서 조신 앞에 예기치 않게 여인이 나타나 연모의 감정을 고백하고 둘은 부부의 연을 맺는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조신이 대비를 원망하며 잠이 든 불당(佛堂)<sup>24)</sup>으로, 그는 현재 자신이 경험하는 사건이 꿈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조신은 현실의 자아 그대로를 의식하며, 욕망과 외부적 조건 등을 유지한 상태로 꿈으로 진입한다.<sup>25)</sup> 그래서 꿈꾸기 이전과 연속성을 가지는 꿈은 현실과 구분 되지 않고, 여인과의 결연으로 시작되는 일련의 사건이 조신에게 그대로 현실로 인식된다. 이렇게 원망(願望)이 이루어지면서 그를 괴롭게 했던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는 조신에게 결핍의 대상인 조신을 사랑하는 여인이 주어지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조신의 애욕은 충족되고 그로 인한 내면의 고통도 사라지게 된다. 일단 <조신>에서 꿈은 인물이 처한 내적인 갈등과 번민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조신과 여인의 결연으로 시작되는 꿈속의 사건은 문제적으로 전개된다. 조신이 꾸는 꿈은 현실의 하룻밤에 해당하지만 꿈속에서는 여인과의 만남 이후 일생에 해당할 50년의 삶을 경험한다. 그리고 짧게 서술되는 조신의 일생 가운데 40년에 걸친 시간은 더욱 압축적으로 표현된

---

23) “忽夢金氏娘，容豫入門，粲然啓齒而謂曰：“兒早識上人於半面，心乎愛矣，未嘗暫忘，迫於父母之命，強從人矣，今願爲同穴之友，故來爾。”信乃顛喜，同皈鄉里，計活四十餘霜(星霜)，有兒息五，家徒四壁，藜藿不給，遂乃落魄扶携，糊其口於四方，如是十年，周流草野，懸鶉百結，亦不掩体，適過溟州蟹縣嶺(蟹嶺縣)，大兒十五歲者，忽餒死，痛哭收瘞於道。從率餘四口，到羽曲(谷)縣，結茅於路傍而舍。夫婦老且病 飢不能興 十歲女兒巡乞，乃爲里瘞所噬，號痛臥於前，父母爲之歔歔，泣下數行。婦乃○(皴)澁拭涕，倉卒而語曰：“(…)”信聞之大喜，各分二兒將行，女曰：“我向桑梓，君其南矣。”方分手進途而形開，(…)。”

24) 입몽 이전의 장소가 그대로 몽유 과정으로 옮겨지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시작되는 몽유 과정은 조신이 꿈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를 암시한다. 조현우 (1999), 앞의 글, 20쪽.

25) 강유환, 앞의 글, 106쪽.

다.<sup>26)</sup> 그 이후의 묘사는 40년이 흐른 시점의 생활상을 그린 것으로 그 사이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다만 시간을 비약해 조신 가족의 삶이 극도의 빈곤에 처한 상황으로 나타날 따름이다. 이토록 궁핍하게 된 구체적 원인은 미상이지만 정황상 부양할 가족이 늘어났기에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요구가 급격히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서사 안에서 조신 부부는 결혼 후 40년의 마지막 5년에 걸쳐 연이어 5명의 아이를 낳은 셈이 된다. 이를 부자연스러운 설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sup>27)</sup> 그 의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조건이 극심하게 변화했고, 그 결과로 비참한 가난과 유랑걸식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을 것이다.

이처럼 <조신>에는 애정과 빈곤이 문제적 상황의 두 가지 축으로 나타난다. 이를 두고 차별적 신분제도,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sup>28)</sup> 또한 그에 대한 인식이 텍스트의 문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기에, 문제를 피상적으로 파악했으나 근본적 원인의 규명에는 이르지 못한 시대적 한계를 언급하기도 한다.<sup>29)</sup> 이러한 지적이 온당하지만 <조신>에서 그려지는 문제적 상황의 보편적 성격을 전제로 하면, 텍스트가 지향하는 의미는 삶의 고통이란 문제를 어디까지나 당대 사회문화의 맥락 안에서 감당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신>에서 애초의 행복이 불행으로 교체되어간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사 안에서 욕망과 결핍, 충족의 문제는 계기적 연속성을 갖는다. 이 인과관계를 중심에 두면 꿈에서 조신과 여인의 결혼이 최초의 애정 문제를 해소하였고, 그 결과 조신은 다섯 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이것이

---

26) 정규식, 앞의 글, 66쪽.

27) 신재홍, 앞의 글, 313~314쪽.

28) 김종철(1988), 앞의 글, 191쪽.

29) 박희병, 앞의 글, 74쪽.

다시 의식주라는 생활조건의 결핍을 파생시킨다. 또한 그것을 계기로 일어난 자녀의 죽음과 불행이 그것을 목도(目睹)해야 하는 부모에게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 된다. 이 연속선상에서 애초의 애정의 결과가 다시 고통의 원인으로 전변(轉變)해 가고, 동시에 조신 개인에서 부부로 다시 다섯 자녀를 포함한 가족에게로 고통이 점증적으로 확산된다. <조신>에서는 이렇게 인물이 가졌던 애육이 고통으로 점철된 꿈을 만들어낸 최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이를 통해 고통의 근본적 원인이 인간의 욕망에 있음이 드러난다.

여기까지 진행된 조신의 꿈은 50여년에 달하는 삶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그 내용은 가난, 질병, 노화, 죽음 등을 포함한 간난신고(艱難辛苦)로 이루어져, 여인과 결연한 뒤로 겪은 인생은 고난만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늙고 병들어 이제 더 이상 삶을 꾸려갈 여력이 없다고 느낄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에 여인이 갑작스레 조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별을 청한다.

“제가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이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의복도 넉넉하여 아름다웠습니다. 맛있는 음식 하나라도 얻으면 당신과 나누고, 몇 자의 옷가지라도 생기면 당신과 함께 하면서, 집을 떠나 산 지 50년 동안 정은 더할 수 없이 깊어졌고, 사랑도 얽혀져 두터운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년에 와서는 쇠약함과 병세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추위와 굶주림은 날로 더욱 절박해져, 결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사람들이 구걸을 용납하지 않아 집집마다 다니는 수치(羞恥)가 산처럼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춥고 굶주려도 미처 돌보지 못하는데,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어느 겨를이 있겠습니까? 곱게 웃던 젊은 얼굴은 풀잎 위의 이슬처럼, 지란(芝蘭) 같은 약속은 바람에 날리는 버들개지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신은 제가 있어 짐이 되고, 저는 당신으로 인해 근심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지난날의 기쁨이 곧 우환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이나 저나 어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요? 못 새들이 함께 굶어죽는 것이 어찌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며 짝을 부르는 것만 하겠습니까?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가까이 함이 인정에 차마 못할 일이지만, 행하고 그침이 인력으로 되지 않고 헤어짐과 만남도 운수에 달렸으니, 이제 헤어집시다.”<sup>30)</sup>

<조신>에서 다른 부분이 사건을 중심으로 간략한 데 비해, 이별의 결연에 대한 여인의 말은 긴 분량과 세련된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회고해 진술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50년을 함께 한 여인이 불가피한 이별을 제안하는 포괄적인 이유는 생존이 불가능할 만큼 삶의 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적된 조건이 이별로 귀착하는 구체적인 계기는 피폐해진 생활로 인해 자녀들이 겪는 불행이다.<sup>31)</sup> 그러한 사태가 주는 고통이 부부간의 애정마저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게 꿈속의 삶을 회상하는 여인의 언술은 욕망을 원인으로 한 결연이라는 결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금 원인이 되어 고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재확인하게 한다. 그리고 여인이 기억하는 과거의 삶은 앞에서 짧은 분량으로 서술된 사건들과 조금은 변별적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지나간 인생의 기억에서 교체된 행복과 불행이 대등한 의미의 비중을 지닌다. 먼저 결연에서 이어지는 전반(前半)의 삶이 아름다움과 젊음, 배려, 나눔, 애정 등으로 의미화되고, 반면에 그로부터 지금 이별의 순간에 이르는 기억은 병과 추위, 굶주림, 부끄러움, 자식의 고통 등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생략되었던 지난 시간에 존재하는 애정과 행복을 상기하는 여인의 발화는 불행과 고통만으로 이루어진 앞서의 사건 서술과 대조를 이룬다.

이어서 지금 이별에 이르게 한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야기 된다. 여인과 조신의 존재가 이제 ‘서로에게 짐과 근심’이 된다는 말은 만남의 순간과는 반대극인 지금의 상황과 함께 애정으로 시작한 인연이

30) “予之始遇君也，色美年芳，衣袴稠鮮，一味之甘得，與子分之，數尺之煖得，與子共之。出處五十年，情鍾莫逆，恩愛綢繆，可謂厚緣。自比年來，衰病歲益深，飢寒日益迫，傍舍壺漿，人不容乞，千門之耻，重似丘山，兒寒兒飢，未遑計補，何暇有愛悅夫婦之心哉？紅顏巧笑，草上之露，約束芝蘭，柳絮飄風。君有我而爲累，我爲君而足憂，細思昔日之歡，適爲憂患所階。君乎予乎，奚至此極？與其衆鳥之同餓，焉知(如)隻鸞之有鏡？寒弃炎附，情所不堪，然而行止非人，離合有數，請從此辭。”

31) 채용복, 앞의 글, 230쪽.

이제 고통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요약하는 ‘과거의 기쁨이 지금 우환의 시작’이었다는 말로써 고통의 원인이 다시금 지시된다. 여인의 언술을 토대로 할 때도 조신의 꿈이 주조한 고통스러운 삶은 역시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조신과 여인의 결연, 또 그 이전에 서로에게 가졌던 애정, 그리고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욕망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인이 제안한 이별을 조신은 그대로 수용한다. 서사에서 만남과 이별을 선택하는 주체는 여인이고, 반면 조신은 그것을 따르는 수동적 인물이라는 차이를 보인다.<sup>32)</sup> 더욱이 조신은 이별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뻐하는데, 이는 여인과의 이별이 그 역시 원하고 있던 바였음을 방증한다. 지난 시간의 사랑과 두터운 인연을 회상하고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나 불가피한 이별을 고하는 여인과 그에 기쁨을 느끼는 조신의 형상이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이 지점에서 인물 형상과 행위를 두고 보면 지나온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또 능동적으로 판단, 행동하는 쪽은 여인이다. 이에 비하여 조신은 욕망과 고통의 문제에 얽매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더라도 부정적 성격을 보여주는 소극적인 인물이다.

꿈꾸기 이전에 조신의 기대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 현실적 장애요인은 여인의 혼인이었다. 그렇다면 그보다 앞선 시점(時點)의 기도는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애정의 성취에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꿈속의 사태를 현실로 경험하는 조신은 자신 앞에 나타난 여인과의 결연에 대해 주저함이 없었다. 이는 신분 격차와 같은 외적 장애를 현실에서 어떻게든 극복 가능한 문제로 인식했음을 뜻한다. 그것은 전개된 서사처럼 설사 도주라는 형태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sup>33)</sup> 따라서 조신이 원한 대상은 여

---

32) 이윤석, 앞의 글, 180~182쪽.

33) 금지된 사랑에 빠진 남녀의 탈주를 뜻하는 사분(私奔)은 <조신>에서 문학적 상상력의 소산에 그치지 않는 신라사회 고유의 습속이며,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개연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강상순, 앞의 글, 30~31쪽.

인의 사랑 자체이지 특정한 외적 현실의 타개는 아니다. 여인이 혼인하는 시점에서야 조신이 비로소 욕망의 충족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것은 여인의 사랑이 자기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 때 조신이 여인에 대해서 애정의 성취를 위한 어떠한 직접적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 의문시된다. 그 이유는 인물의 성격 및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조신은 욕망의 대상인 여인의 애정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만을 피동적으로 원했을 뿐이다. 이러한 인물의 내면에는 이타적 의미를 갖는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고, 애초에 조신의 감정은 상호간의 쌍방적인 애정의 교환이라는 의미의 사랑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그는 일방적인 애정을 요구했으며, 주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이별에 기뻐하는 내면의 모습에서 조신에게 여인과 애정 등이 욕망의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부정적이긴 하지만 인간이 지닌 보편적 지향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인물은 어디까지나 조신이다. 그리고 이별을 맞아 조신과 여인이 헤어지려는 순간 <조신>의 꿈이 마무리된다.

꿈 이후

- (1) 꿈을 깨어 아침이 되어보니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었으며, 세상에 뜻이 없어져 괴로운 인생이 싫고 탐심(貪心)도 사라졌다.
- (2) 이에 성용(聖容)을 대하기가 부끄러워 참회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 (3) 해현(蟹峴)으로 돌아가 아이를 묻은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나와 물로 씻어 근처의 절에 봉안하였다.
- (4) 서울로 돌아가 장원의 관리를 그만 두고 사재(私財)를 기울여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백업(白業)을 닦았는데 그 마지막은 알지 못한다.<sup>34)</sup>

34) “殘燈翳吐，夜色將闌，及旦，鬚髮盡白，惘惘然，殊無人世意，已厭勞生，如飫百年辛苦，貪染之心，洒然氷釋。於是，慚對聖容，懺滌無已。歸撥蟹峴所埋兒塚，乃石勒也，灌洗奉安于隣寺。還京師，免莊任，傾私財，創淨土寺，懃修白業，後莫知所終。”

여인과 이별하여 각자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순간에 조신은 꿈에서 깨어난다. 두 남녀의 결연으로 시작된 꿈이 애정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 꿈을 통하여 삶 전체를 경험하고, 꿈을 깨어 그제야 만남에서 이별까지의 50년의 삶이 하룻밤의 짧은 꿈이었음을 조신은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꿈임을 인식하는 순간에 통절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 계기는 조신의 머리와 수염을 하룻밤 새에 하얗게 세계 할 만큼 강렬한 삶의 고통<sup>35)</sup>을 스스로 체험한 것으로, 곧 그 자신의 욕망이 초래한 것이었다. 그래서 <조신>은 인생의 괴로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 꿈을 빌려 일생을 축약하고 있다고<sup>36)</sup>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세상사와 그 안에서의 괴로운 삶에 염증을 느끼게 된 조신은 애욕이란 가장 근원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더불어 욕망 일체에서 벗어나 여타의 탐욕이 소멸되는 변화를 겪고 깊이 참회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경험한 조신은 욕망을 지향하는 세속적 삶과 현실을 부정하고 그 초월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조신에게 부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의 부조리한 현실보다는 자기 내부의 모순과 그에 따른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물의 참회가 그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적 요인에 있다는 점을 명시해주고 있다. 또한 <조신>은 인물의 감정을 비롯한 내면적 현상과 변화가 조신에 국한해 서술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른 주요 인물인 여인에 대해서는 외면의 묘사와 발화만이 있을 뿐 내면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텍스트를 서술하는 시선이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하더라도<sup>37)</sup> 조신 내면의 현상만은 투시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상의 특징은 <조신>의 이해에 있어 인물의 내면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주제가 인물의 인식 및 세계관의 변화에 밀착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신>이 지향하는 의미는 세계와 그 안의 인생이 괴롭다는 것에 머무

35) 김중철(1995), 앞의 글, 544쪽.

36) 박희병, 앞의 글, 64쪽.

37) 조현우(1999), 앞의 글, 24~26쪽.

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고통의 원인인가를 성찰해야 하며 그것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 핵심이 있다.<sup>38)</sup> 조신의 참회는 부정적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반성한 결과이다. 그러한 부정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어디에 있더라도 괴로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조신은 꿈에서 깨어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모순과 한계에 관해 깨닫는다.<sup>39)</sup> 그렇기에 <조신>은 세계의 부조리를 보여주면서도 필연적으로 그 토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 숙명과 불완전성, 내면의 모순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꿈을 통하여 조신은 외부의 관점에서 삶의 전체상을 반조(反照)하게 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꿈에 대한 성찰은 곧 자신을 대상으로 한 거리 두기, 자기객관화이다. 이를 통해 조신은 부정적인 자신을 부정하고 초극하게 된다. 그 결과 변화한 인물의 형상은 꿈꾸기 이전의 역상(逆狀)이다. 꿈꾸기 전, 그리고 꿈속의 조신은 미망(迷妄)에 사로잡혀 있다는 동질성을 가지고 외부 상황과 내면의 욕망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였다. 그와 달리 꿈을 깬 후에 조신이 하는 일련의 행위는 모두 스스로의 주체적인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다.<sup>40)</sup> 그렇기에 꿈에서 깬 조신의 각성은 이전의 꿈과 같은 자신과 현실을 극복하게 하며, 깨달음으로 인해 비로소 조신은 고유한 자기의 자유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38) <조신>에 대해 일연이 지은 사(詞)에서도 세속 안에서 자기를 극복하여 집착을 떨치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 강조된다. 이강옥, 앞의 글, 38~39쪽.

39) <조신>은 특정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보편적 문제를 다루면서, 신앙의 초월성이나 영험을 보여주는 『삼국유사』 소재의 다른 불교 서사와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이윤석, 앞의 글, 175~177쪽.) <조신>이 초월, 영험을 드러내는 것과 다른 의미를 지향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바이나, 그것이 인간의 보편성과 종교적 특수성이라 가정(假定)된 대립에 있어서 전자에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0) 아이를 묻은 곳을 파내어 돌미륵을 발견하는 일, 서울로 돌아가 장원의 관리를 그만둔 일, 재산을 기울여 정토사를 지은 일 그리고 백업(白業)을 닦는 일 등 꿈을 깨어 깨달은 뒤에 조신이 취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의한 것으로, 꿈 이전과 꿈에서 외부적이고 타율적인 힘에 종속되어 있던 것과는 반대되는 인물 형상을 보여준다.

### 3. <조신>과 불교적 사유

불교의 사유, 특히 깨달음의 문제와 <조신>은 깊이 연관되고,<sup>41)</sup> 일체의 존재와 현상이 꿈이고 환상이라는 불교의 인식은 조신의 인생이 하룻밤의 꿈으로 그려지는 것과 같은 의미 맥락에 있다.<sup>42)</sup> 그리고 꿈속의 사건이 인물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듯 보이지만, 결국 고통으로 결구되는 것으로 <조신>은 다른 환몽구조의 서사들과 대비를 이룬다. 이 때문에 조신의 꿈이 불교적 맥락에서 인생의 고통과 부정적 현실을 깨닫도록 하는 장치이며, <조신>은 욕망과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 악순환하는 인생 자체를 하나의 꿈으로 보아야한다는 불교적 사유를 서사적으로 재현한 텍스트로<sup>43)</sup> 볼 수 있다.

이렇듯 일체가 꿈 내지 환상이라는 인식의 기반에는 ‘공(空)’의 사상이 있다.<sup>44)</sup> 이를 우선 존재, 현상, 개념 등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사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의 부정은 반대로서 긍정을 도출하는 데 그치는 한계

---

41) <조신> 서사의 논리적 전개는 ‘迷惑-[樂-苦]-覺’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깨달음은 미혹의 세계가 공(空)하다는 환(幻)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그 바탕에 공사상이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임철호, 앞의 글, 270~271쪽.

42) 이월영(1989), 「佛家的 夢形象 類型的 敍事文學의 展開」, 『한국언어문학』 27, 한국언어학회, 207~209쪽.

43) 세간의 일체가 마음의 흐름에 종속된다는 사유는 초기불교로부터 유식론(唯識論)에 까지 이어져 왔다. 그에 따르면 마음에 비추어 나타나는 표상만이 있을 뿐 그에 대응하는 외계의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것처럼 대상이 실재한다고 봄은 잠들어 꿈속에 있는 것과 같고, 그 꿈을 깨는 것은 집착하는 대상이 허상에 불과하기에 없는 것임을 깨닫는 일이다. 오대혁(1998), 앞의 글, 378~379쪽.

44) 공(空)은 무(無)나 공허(空虛)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른 것에 의지해 일어난다는 연기(緣起)의 법칙에 의거해, 경험세계에서 감각, 의식, 자아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자존하는 무엇도 없으며, 그에 따라 일체 사물과 현상이 꿈, 환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꿈과 환상은 현실에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공관(空觀)에 의하면 만물이 환상이기에 현실계마저 환상과 다르지 않다. 오대혁(2004), 「불교문학의 환상성과 사찰연기설화」, 『불교어문논집』 9, 한국불교어문학회, 5~8쪽.

가 없으며,<sup>45)</sup> 특정한 대상 A를 긍정하고 非A를 부정하게 하는 본질, 속성 등이 존재한다는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대립적 자질로 대상을 구분 짓는 논리 자체를 부정한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非有非無]’<sup>46)</sup>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공의 부정은 대립적인 개념 중에서 한쪽을 취하는 판단 대신에 양쪽 모두를 극단으로 보아 거부한다. 이 철저한 부정이 극단에 이르러 역설적으로 긍정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일체의 부정으로 긍정될 것이 없을 때에 부정에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립 자체를 넘어선 절대적 긍정<sup>47)</sup>으로 진전하는 것이다.

이렇듯 공은 모든 존재와 현상에 대한 부정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sup>48)</sup> 긍정과 부정 같은 형식을 취하는 사유의 구분을 해체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편적(方便的) 원리로, 이분법적 구별을 넘어 의미의 대립 자체를 초월하려고 한다.<sup>49)</sup>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세계와 그 안의 모든 존재, 현상에 실체적인 본성이 없으며, 집착할 대상도 없다는 인식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세속을 부정하고 세속이 아닌 열반을 구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망집(妄執)일 뿐이다. 그러나 <조신>에서 현실 부정의 의미를

---

45) 대상이나 개념의 실체성을 비판하여 제거하기 위해 공의 표현을 쓰는 것이지, 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공의 부정표현을 정립적 의미의 또 다른 실체적 개념으로 오해하는 것은 분별적 사유의 결과물이기에 그조차도 부정되어야 한다. 김성철(2006), 『중관사상』, 민족사, 194~196쪽.

46) ‘非有非無’, ‘不一不二’, ‘不常不斷’ 등으로 표현되는 불교적 사유는 흑백의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작동하는 생각의 양극단을 비판하고, 그 중도(中道)를 취함으로써 생각이 구성하는 고뇌의 허구성을 깨달아 얻어지는 해방과 자유에 그 목적이 있다. 김성철, 위의 책, 44쪽.

47) 야지마 요우기찌, 송인숙 역(1992), 『空의 철학: 절대부정 절대긍정』, 대원정사, 22~23쪽.

48) 공성의 이해는 사물의 절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삶의 슬픔을 자신이 만든 허구로 간주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조작을 멈추어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프레데릭 J. 스트랭, 남수영 역(1999), 『용수의 공사상 연구: 그 종교적 의미에 대하여』, 시공사, 203쪽.

49) 생사와 부정(不淨)을 나쁘게 보아 저열하게, 열반과 청정을 좋게 보고 우위에 두는 견해 때문에 오히려 청정하지 못함을 보게 된다. 그와 반대되는 평등이 부처의 지혜이다. 이영무(1989), 『維摩經講說』, 월인출판사, 88쪽.

주목하는 해석의 틀에는 꿈이자 환상인 세속과 그 부정의 의미로서 초월을 대립시키는 인식이 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적 깨달음을 <조신>이 서사화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세속을 부정하고 초월을 지향하는데 머문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신>은 더 나아가 그 간극을 올바로 인식하여 해소를 모색하는 의미도<sup>50)</sup> 담지(擔持)하는데, 이를 진정한 의미의 극복 내지 초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신>에서 꿈꾸기 전 인물의 욕망은 꿈속의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으로, 그것은 다시 꿈을 깬 후의 깨달음으로 연속해서 이어진다. 그 사이의 구분은 유동적, 상호의존적으로, 꿈의 안과 밖에 비현실과 현실로 깨끗이 절단되는 경계면은 존재하지 않는다.<sup>51)</sup> 그래서 꿈 아닌 현실과 꿈이, 그리고 꿈과 꿈에서 깨어난 깨달음이 상호침투하여 서로를 조건으로 연기(緣起)하는 관계에<sup>52)</sup>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원성을 부정하는 공의 입장에서는 <조신>에 나타난 꿈속의 세속과 꿈밖의 비세속이 구별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다르다고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sup>53)</sup> 그 꿈은 꿈으로 인지할 수 없을 만큼 현실적이며,<sup>54)</sup> 또 꿈을 깬 이후의 세계도 꿈 이전과 동일

---

50) 세속과 그것을 초월한 초세속이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양자는 상보적인 지양의 관계에 있으며, <조신>에서 초세속은 세속의 경험을 통해 보완, 극복된 것으로 그것이 의지하는 세속을 단순히 부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강욱, 앞의 글, 39쪽.

51) 이는 단순히 꿈과 현실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식의 기반에서는 상호교류가 가능한 유연한 경계를 가지면서 차별적 대립이 극복될 수 있음을 뜻한다. 조현우(1999), 앞의 글, 29쪽.

52) <조신>에서 꿈은 공사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주요한 장치로 일체의 현상을 이분하여 하나를 쫓는 것에서 번뇌가 생겨남을 깨닫게 하며, 현실과 꿈의 논리가 상반되지 않고 필연적 연결 관계에 놓임으로써 그에 연관된 성과 속이 분리된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적 의미를 서사구조를 통해 보여준다. 설성경, 앞의 글, 365~366쪽.

53) 원효가 정토사상에 대해 설(說)한 『유심안락도(遊心安樂道)』에서는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차안(此岸)도 피안(彼岸)도 없다. 예토(穢土)와 정토(淨土)가 따로 없고 본래 한 마음이며, 생사(生死)와 열반(涅槃)도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역시 분별적 인식을 타파하는 것이 곧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고 있다. 정의행(1991), 『한국불교통사: 우리 민중불교사의 복원』, 한마당, 141쪽.

하다.<sup>55)</sup> 결국 꿈의 안과 밖에서 조신이 체험하는 세계는 동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그 자신일 뿐이다.<sup>56)</sup> 꿈으로 그려진 조신의 인생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고,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는 가련한 중생의 보편적인 모습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텍스트를 통해서 외부의 현실 또는 세계를 변혁해야 한다는 의식은 읽어내기 어렵다. <조신>이 지향하는 의미는 차라리 그것을 어떻게 감내하는가 나아가 그토록 부정적인 세계를 어떻게 긍정할 수 있는가의 다른 차원의 현실적 문제에 초점이 있는 듯하다.

불교의 사유에서는 그에 필요한 깨달음의 조건으로 초기부터 외적 대상의 ‘무상(無常)’과 내면적 자아의 ‘무아(無我)’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신>의 서사에서도 이러한 깨달음의 기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서사적 장치를 찾을 수 있다. 꿈속의 삶을 통해 조신은 두 차례에 걸쳐 커다란 기쁨을 맛본다. 첫 번째는 꿈의 시작점인 여인과의 결연에 의한 것이다. 오랫동안 원했던 애욕의 대상이 주어지고, 결핍의 고통이 종식되는 것에 조신은 ‘기뻐한다[顛喜]’. 다음으로 이별의 순간에 이제 헤어지자는 여인의 말을 어떤 망설임이나 회한 없이 따르면서 꿈의 마지막에 이르러 조신은 또한 크게 ‘기뻐한다[大喜]’. 이렇게 겹쳐지는 동일한 인물과 내면의 형상은 서사의 전개에 있어 어찌면 불필요한 것이다. 만일 세계의 횡포에 대립하는 인물의 형상화에 텍스트의 지향점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는 오히려 분노나 슬픔, 적어도 체념의 감정이 인물

54) 박일용, 앞의 책, 74~75쪽.

55) 공의 사유는 인간과 세속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자기부정과 자기지양을 거쳐 다시 되돌아오는 것으로 완결된다. 그에 따라 달성되는 열반의 세계는 인간적인 삶과 인간적인 사유의 세계와 어떠한 차이도 없는 것이다. 야지마 요우기 씨, 송인숙 역, 앞의 책, 27쪽.

56) 서로 의존해 연기하는 일체가 공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에 집착해 속박된 상태가 윤회이다. 그리고 공을 깨달아 일체의 집착을 끊어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의 자유를 얻은 상태가 열반이다. 이것은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차이로 그 사이에는 어떠한 구별도 없다. 열반의 경지가 따로 존재한다고 여기고 갈망하는 마음은 번뇌의 뿌리일 뿐이다. 나카무라 하지메, 남수영 역(2010), 『용수의 중관사상』, 여래, 265~269쪽.

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지적한대로 그토록 갈구하던 여인과 이별하는 순간에 큰 기쁨을 느끼는 인물 형상은 이질적으로 돌출되어 있고, 그만큼의 독특한 의미를 생성해내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부정적 성격<sup>57)</sup>이나 인성의 타락을 초래하는 사회현실<sup>58)</sup> 등을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원인의 해명 이전에 이러한 인물 내면의 현상 자체가 참으로 ‘사실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 이별에 대해 기쁨을 느끼는 조신은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의 욕구에 충실한 모습으로, 쉽게 인식되지 않거나 은폐되는 인간의 내면을<sup>59)</sup> 보여주게 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생래적 감정이며, 특수한 개인으로서 조신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보편적으로 가지는 속성, 경향일 것이다. 이와 같은 내면의 현상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결핍의 충족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인간 본연의 원초적 심리의 발로이다. 욕망의 대상인 여인의 결핍으로 겪었던 고통이 결연을 통해 해소됨에 기뻐던 것과 같이, 이제는 그것을 원인으로 해 만들어진 고통이 이별로 소멸되는 상황 또한 조신에게 큰 기쁨을 준다. 의지나 이성의 작용 이전에 존재하는 이러한 내면의 심리적 현상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인간의 본성이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조신>은 결핍된 대상의 소유만으로는 욕망으로 인한 고통의 궁극적 해소가 불가능함을 이야기한다. 과거에 바라던 대상이 조건에 따라 지금에 와서는 기피의 대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

---

57) 이윤석, 앞의 글, 179쪽.

58) 김용철, 앞의 글, 463쪽.

59)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필요에 의해서만 타자와 관계를 맺는다. 이는 인간 내면의 심층에 존재하는 본래의 경향성이며, 인간의 정신에 있어 그에 연관된 내부의 정서, 심리 등은 이성, 지성, 의지 등과 분열되어 있다. <조신>에 나타나는 인물의 내면은 이와 같은 심층의 일차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 프롬 외, 김용정 역(1992), 『禪과 精神分析』, 원음사, 18~19쪽.

그리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영속적 실체로서의 대상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득하는 것에 깨달음의 핵심이 있다. 대상의 소유로 일시적 충족감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의 영원한 지속은 불가능하고, 형태를 달리하는 갈구는 계속될 뿐이다. 그래서 <조신>은 인간의 심층적인 욕망인 애욕과 대상의 관계가 무상함을 형상화하면서, 종류를 달리 하는 욕망과 대상의 관계도 역시 동일한 구조로 반복됨을<sup>60)</sup> 유추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만남과 이별의 대극적 순간에 역설적으로 똑같이 기쁨을 느끼는 조신의 형상은<sup>61)</sup>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의 같음을 요구하는 자아의 동일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듯 지금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나 역시 지금의 나와 같을 수는 없다.<sup>62)</sup> 그래서 여인과의 결연을 기뻐하던 조신은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만남과 이별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두 조신이 같지만 또한 다른 인물이기도 한 것이다. 무아는 영원불멸의 정신, 영혼이나 주체 등에 해당할 자아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sup>63)</sup> 그에 따라 어디에도 나[我]라고 할, 나의 것[我所]이라고 할 무엇이 있을 수 없고, 자아 개념의 이러한 모순

---

60) 고골관(枯骨觀), 백골관(白骨觀)은 시체를 앞에 두고 부패 과정을 관찰하여, 자기의 존재와 동일시하는 육체가 영원할 수 없으며, 집착의 대상이 아님을 깨닫는 불교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대상이 사라지는 과정을 보아 얻는 무상의 인식처럼 애욕 및 대상과의 관계가 소멸하는 과정을 꿈을 통해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조신은 깨달음을 얻는다. 김영미(2000), 「불교의 수용과 신라인의 죽음관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20, 한국고대사학회, 152~156쪽.

61) <조신>의 결연과 이별은 구조적으로 인물이 지닌 결합의 소원과 분리의 소원이라는 이원적 대립을 보여준다. 정종대(1986), 「檀君 神話의 構造 分析 試考- 調信 說話와의 構造的 換置에 關聯하여-」, 『국어교육』, 55, 385~386쪽.

62) 김성철, 앞의 책, 42쪽.

63) “과거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아我’는 아니다. 그것은 [인식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겨난 [현재의] 마음을 ‘아我’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역시 ‘아我’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 제9 <지혜품(智慧品)> 산띠데바, 최로덴 역주(2006), 『(티베트 불교 주석 전통에 따른) 입보리행론譯註』, 하얀연꽃, 417쪽.

과 비실체성을 직시함으로써 그에 집착하여 생기는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다.<sup>64)</sup> 이와 마찬가지로 <조신>은 인물의 내면을 통해 욕망과 대상, 그리고 그에 집착하는 자아의 덧없음 또한 보여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달하는 깨달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꿈을 깨어 원망하던 대비 앞에서 조신이 느끼는 절실한 참회의 감정은 자신과 욕망의 참모습을 인식한 결과이며, 그 계기인 꿈은 외부 세계의 횡포보다는 인물 내면의 실상을 폭로하는 것에 더욱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깨달음은 근원적 심리의 현상과 모순을 성찰한 결과로 내부적이며 자족적이다. 그것은 처벌이나 교정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 스스로 고통을 만들었던 자기를 성찰한 뒤의 자각(自覺)인 것이다.<sup>65)</sup> 조신의 꿈은 애욕이 원인이 되어 시작되고 그에 대한 갈구가 모두 사라짐으로 끝이 나는데, 이로써 꿈의 주체는 욕망이 일어나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 다시 사라지는 생멸(生滅)의 과정과 존재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모순된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은 욕망으로 인한 집착과 그 원인인 자기를 부정하고 극복함을 의미한다.<sup>66)</sup>

---

64) 나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남과 남의 것을 분별하게 하여 집착과 번뇌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단일, 불변의 독립적인 자아가 있다는 인식은 과거와 현재의 내가 같지 않다는 사실과 상치된다. 그 같은 자아의 동일성은 증명 불가능하고, 항상(恒常)하는 자아라는 생각은 전도(顛倒)된 견해에 불과하다. 영원히 존재하는 독립된 내가 없음을 깨달아 나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지혜로 그러한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텐진 가초, 박은정·양지애 역(2005), 『(달라이 라마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 『입보리행론』 법문』, 하얀연꽃, 36~38쪽.

65) 진실은 가르침에 의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명상하고 직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각의 경지에 있다. 카지야마 유키치·우에야마 슌페이, 정호영 역(1989), 『空의 論理: 中觀思想』, 민족사, 65쪽.

66) “이 모든 대지 위를 다 덮을 만한 그 많은 가축을 어디에서 얻으리요. 신발 바닥 정도의 가축만 가지고도 모든 대지를 다 덮을 수 있는 것과 같다네. 마찬가지로 외부의 사물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나의 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것을 다른 것은 바꿔서 무엇 하리오.” 『입보리행론』 제5 <억념자각품(憶念自覺品)> 산띠테바, 최로덴 역주, 앞의 책, 151~152쪽.

그렇기에 조신의 꿈이 관음의 영험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깨달음은 결국 그 자신에게 달린 문제라 할 수 있다. 초월적 존재의 개입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조건을 마련할 뿐,<sup>67)</sup> 깨닫는다는 결과를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조신>은 신성(神聖)을 친견할만한 자격을 갖추거나 불도의 수행에 용맹하게 정진하는 등의 특별한 조건을 갖춘 인물이 아니라, 지극히 범속(凡俗)하며 나아가 부정적이라고도 할 만한 인물의 삶과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이다.<sup>68)</sup> 그리고 그러지는 꿈이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이기에, 그와 같이 어리석고 그의 꿈처럼 괴로운 삶을 사는 이들도 조신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삶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sup>69)</sup> 그렇다면 현실의 대중(大衆)에게도 멀지 않은 곳에 해탈의 가능성이 늘 열려있다고 하는 <조신>의 경우 초월적 존재가 가지는 의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다.<sup>70)</sup> 그보다는 삶과 자기의 철저한 성찰이라는 깨달음에 이르는 현실적 방법이 <조신>에서는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짧은 분량의 서술이지만 꿈을 깬 뒤에 조신이 취하는 행위는 되돌아온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구체적 양상이라 할 것이다.

---

67) 이윤석, 앞의 글, 184쪽.

68) 김용철, 앞의 글, 459쪽.

69) “몸이 있는 것이 부처가 될 씨앗이 되며, 무명으로 애욕이 있는 것이 부처가 될 씨앗이 되며, 탐욕(貪慾)과 진에(瞋恚)와 우치(愚癡)들이 부처가 될 씨앗이 됩니다. (...) 요점을 들어서 말하면, 62가지의 견(見)과 일체의 번뇌들, 이것이 모두 부처가 될 씨앗입니다.” 『유마경(維摩經)』 제8 <불도품(佛道品)> 이영무, 앞의 책, 339쪽.

70) <조신>에서 꿈을 관음의 영험으로, 꿈속의 여인을 관음의 화신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서사에서 그 근거로 삼을 구체적 정황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해석의 차원에서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실린 다른 ‘성불 유도형(成佛誘導型)’ 관음설화(인권환(2011), 『한국문학의 불교적 탐구』, 월인, 344쪽.)와 비교해서도 관음의 영험 내지 현신이 <조신>에는 나타나지 않고, 또한 일연의 의(議)와 사(詞)에도 그러한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김종철(1995), 앞의 글, 545쪽.) 그래서 <조신>에서 깨달음은 외부 조력자의 초월적 권능보다 인물의 자력에 의한 자각이라는 의미가 보다 뚜렷하다.

<조신>은 인생 본래의 고통을 강조하면서 깨달음을 통한 고통의 종식을 보여주고, 이어서는 꿈을 꾸듯 고통의 세계에 머무는 것과는 변별되는 삶을 지향한다. 이때 선택 가능한 실천의 하나는 부정적인 대상과 관련 있는 모든 것을 떠나 고립된 공간에서 자신을 외부와 차단하는 것으로, 세속을 떠나 해탈,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이다. 그렇지만 ‘대승(大乘)’을 자처하며 나타난 불교사상은 세속을 등지고 자신의 해탈을 위해 수행하는 아라한(阿羅漢)보다, 세속에 참여해 중생과 함께 살아가며 보리심(菩提心)으로 일체중생의 구제에 전력을 다하는 보살(菩薩)을 전범적(典範) 인간상으로 이상시하였으며, 개인의 초월만을 추구하는 이전의 사상을 ‘소승(小乘)’이라 비판하였다.

일견 조신은 고통스러운 꿈과 같은 세속을 부정하고 그로부터 떠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꿈속에서 죽은 아이를 묻은 자리를 꿈에서 깬 이후에 파보고 돌미륵을 발견하는 화소가 이러한 이분법적 이해를 차단한다. 이 모티프 자체가 <조신> 특유의 것은 아니다. 『삼국유사』의 <생의사석미륵(生義寺石彌勒)> 조 역시 꿈속 사건을 계시로 땅에 묻힌 돌미륵을 발견하는 이야기이고, <조신>과 같은 조에 실린 범일의 일화도 꿈속의 만남을 통해 정취보살의 상을 찾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러한 서사의 구조는 꿈속의 사건을 현실과 다른 허상으로 파악하지 않게 하는데,<sup>71)</sup> 이는 <조신>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조신>의 경우는 이 화소로 인해 꿈속의 죽은 아이가 꿈 이후의 현실에서 돌미륵과 등치(等値)되고, 그것이 꿈의 안과 밖이라는 경계 그리고 고통과 깨달음의 문제와 연관되면서<sup>72)</sup> 구분선을 모호하게 한다. 그래서 꿈속의 조신이 보여준 이율배반적인 내면과 같이 <조신>의 돌미륵화소는 신이나 영험의 증명을 넘어 텍스트의 의미 생성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sup>73)</sup> 할 수 있다.

71) 오대혁(1998), 앞의 글, 356쪽.

72) 임철호, 앞의 글, 276~277쪽.

73) <조신>의 서사에서 여인이 꿈 이전과 꿈을 연결한다면, 죽은 아이는 꿈과 꿈

이계체험이나 몽중체험의 증거가 현존하여 현실과 다른 세계나 존재의 실재가 긍정되거나 적어도 판단이 유보되는 서사는 적지 않다. <조신> 역시 꿈속의 사건인 아들의 죽음과 매장이 허구 또는 환상이 아니라 꿈밖의 현실에서 실재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꿈과 현실의 경계에 균열이 일어나고, 꿈을 부정하고 현실을 긍정하는 식의 일반적 판단은 혼란스러워진다.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꿈속의 죽은 아이와 꿈밖의 미륵이 겹쳐지면서 죽은 아이가 속하는 세속과 미륵이 상징하는 초월의 범주 또한 중첩된다. 조신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인 굶주려 죽은 아이의 표상과 미륵이 나타내는 의미가 하나의 맥락으로 접속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아이와 돌미륵은 세속의 고통스러운 삶과 해탈의 세계가 결국에 다르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면서, 고통이 바로 열반이라는 사유를<sup>74)</sup>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신>의 돌미륵화소는 그것이 개인 차원의 해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꿈을 깬 조신이 꿈속에서 죽은 아이를 묻은 자리를 파보는 것은 그에 얽힌 삶의 고통을 기억하고 다시 꺼내어 반추함을 뜻한다. 그는 욕망의 추이와 자기를 부정하여 깨달음을 얻었고 이후에 그것들은 의미를 상실한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삶의 체험을 집약하는 죽은 아이의 존재와 기억은 대상을 위한 이타적 의미를 갖는 조신의 자발적 행위로 깨달은 후의 현실에서 의미를 회복하게 된다.

꿈에서 조신은 자녀의 죽음과 고통에 슬퍼하며 마치 자신의 것과 같이 격심한 고통을 느낀 바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아이와 조신은 다른

---

이후를 연결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조신의 깨달음과 그에 따른 실천의 의미에 관련해서는 꿈의 안과 밖에서 죽은 아이가 표상하는 바의 이해가 더욱 중요한 관건이다. 이윤석, 앞의 글, 184쪽.

74) 인간의 고통은 그것이 열반과 동일함을 깨닫지 못하고 양자를 구분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번뇌가 곧 깨달음이고, 고통과 윤회가 열반과 같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고통의 비실체성을 깨닫는 데 있다. 정승석 (2011), 「불교적 고관(苦觀)의 추이와 의의」, 『인도철학』 32, 인도철학회, 115~118쪽.

개체, 타자로 일방의 고통이 다른 쪽에 직접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 없다. 이 같은 고통의 전이(轉移), 그 심리적 현상 자체는 욕망에 의해 추동(推動)되는 것만큼이나 인간 존재에게 보편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자식에게 닥친 불행과 고통을 조신이 전적으로 타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경험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그가 아이의 무덤을 파내는 계기는 이러한 심리적 일체감, 곧 공감과 연민에 있으며, 이 보편적 경험은 자기와 타자를 구분하는 경계 및 양자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sup>75)</sup> 연동된다.

조신이 참회하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죽은 아이인 돌미륵을 파내어 봉안한 일이다. 그래서 깨달음에서 이어지는 조신의 실천은 것처럼 비참하게 죽어간 아이가 나와 분별될 타인이 아니고, 또한 보살과도 같다는<sup>76)</sup> 확인에서 출발한다 할 수 있다. 굶어 죽어 땅에 묻은 자식을 대하는 조신의 마음, 그것이 곧 보살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자비(慈悲)와 이타(利他)가 대표하는 보살행은 부모와 아이가 타자의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 것과 같은 ‘자타불이(自他不二)’<sup>77)</sup>의 정신, 그만큼의 공감과 연민에 말미암는다. 조신과 아이가 둘이 아닌 관계에 있듯이,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보는 것처럼 보고 그 구제에 진력한다.<sup>78)</sup>

---

75) 현상계제법은 상즉상입(相卽相入)하여 실체적으로 만물일체(萬物一切), 현상적으로 만물상의(萬物相依)의 불리일체(不離一體)의 관계이다. 부도덕한 행위의 원인은 그 관계를 망각하고 서로를 구별하는 차별적 관념에 있다. 타인을 자신처럼, 타인의 행위를 자신의 것처럼 인식함으로써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김동화(1989), 『佛敎倫理學: 人間學으로서의 佛敎』, 보련각, 148~149쪽.

76) 굶어 죽은 아이가 곧 미륵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중생, 특히 핍박받고 소외된 이들이 불성(佛性)을 지닌다는 불교적 사유 또한 드러내는데, 이는 개인적 차원의 고통과 깨달음의 문제가 사회적 의미에까지 확장됨을 보여준다. 이강욱, 앞의 글, 40~41쪽.

77) 불교의 자비는 타자에 대한 동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일체를 자기와 평등하게 대하는 실천으로서, 상호인과관계로 존재하는 인간의 삶에서 당위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중표(2005), 「자비의 윤리」, 『불교학연구』 12, 불교학연구회, 604~605쪽.

78) “비유하면 어떤 장자에게 오직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을 얻으니

이렇게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하나의 고통이 곧 모두의 고통이라는 체험과 깨달음으로부터 윤리적 인식과 실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조신은 깨달음으로 인해 애욕과 함께 소유욕 등 욕망 일체의 타율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후 죽은 아이를 미륵으로 재발견하고 재산을 다해 정토사를 지어 백업(白業)<sup>79)</sup>을 닦는 일련의 행동은 그에 따라 행하는 실천일 것이다.<sup>80)</sup> 그리고 이러한 인물의 행위가 이타적 지향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조신>에서 깨달음이 요구하는 자비의 윤리와 실천은 자신을 넘어서 타자와 현실의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sup>81)</sup> 그 시작점은 개인의 심리적 태도, 윤리적 인식 등 내면의 각성에 있을 것이다.<sup>82)</sup>

그의 부모도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만일 그 아들의 병이 나으면 그 부모의 병도 나을 것입니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을 아들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니 중생이 병들면 곧 보살도 병이 나게 되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의 병도 나을 것입니다. 또는 이 병이 무엇으로 인하여 생겼느냐고 말씀하시니, 보살의 병은 큰 자비심 때문에 생겼습니다.” 『유마경』 제5 <문수사리문질품(文殊師利問疾品)> 이영무, 앞의 책, 231쪽.

- 79) ‘백업(白業)’은 이타심에 전적으로 바탕을 두고, 도움을 주려는 선한 동기로 타인을 돕고 수희(隨喜)하는 것이다. 텐진 가초, 김정욱 역, 앞의 책, 321쪽.
- 80) 자비의 완성은 완전한 무집착으로, 무집착은 다시 일체법이 공임을 아는 반야(般若)의 지혜로 가능하다. 자비와 공은 대립이 아닌 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관(空觀)에 기초해 자타의 대립을 넘어섬으로써 다른 개별적 존재를 향한 전면적인 자비의 행위가 성립한다. 남수영(2006), 「중관학파의 공사상에서 자비의 성립과 완성-『大智度論』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25, 보조사상연구원, 510~513쪽.
- 81) 무소유는 소유의 반대가 아니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심을 버리고 자타의 평등성을 깨닫는 무소유의 출리심(出離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기에 이 세상에 따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고통만 생기게 하는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보리심(菩提心)이다. 산띠데바, 최로덴 역주, 앞의 책, 150쪽.
- 82) “세상의 행복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남의 행복을 빌어서 생기며 세상의 고통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생긴다. 많은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위해 일하고 부처牟尼는 남을 위해 일한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보라.” 『입보리행론』 제8 <선정품(禪定品)> 산띠데바, 최로덴 역주, 앞의 책, 330쪽.

지금까지 읽어본 것처럼 <조신>은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통의 종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특유의 서사적 장치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심화시키며, 그 내용은 불교적 사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그것을 구체화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조신>은 고통과 열반, 세속과 해탈, 중생과 부처 등이 다르지 않음[不二]을 올바로 깨달음으로써 지금 여기의 삶이 곧 해탈과 열반에 이른다는 것을 이야기한다.<sup>83)</sup> 그러한 분별과 대립의 사유를 넘어선 곳에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욕망과 대상, 그로 따른 고통 등이 무상(無常)할 뿐만 아니라 그 주체로서 자아 역시 고통의 본질이나 실체가 없는 존재임을 보여준다.<sup>84)</sup> 지금 내가 불편하는 무엇이 아니라는 무아(無我)의 인식으로 나와 나의 것이 결국 공(空)이기에 집착의 대상이 있지 않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신>에서는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平等)의 사유와 그 실천인 이타적 자비(慈悲)를 현실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sup>85)</sup> 것처럼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

83) 세계와 인생이 꿈, 환영이라면 그 안에서 청정과 부정, 열반과 번뇌, 해탈과 속박, 여래와 범부를 구별하는 것은 오류일 뿐이다. 공성(空性)에 대한 인식으로, 분리되어 대립하는 두 세계가 본체가 없음을 통해 하나가 된다. 깨달음은 곧 사물의 공성을 보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미혹된 세간인과 깨달은 여래가 공성이라는 동일한 본성을 가지며 윤회와 열반도 구별되지 않는다. 카지야마 유키치·우에야마 슌페이, 정호영 역, 앞의 책, 126~128쪽.

84) 인간이 자아와 세계를 실재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욕망에서 비롯한다. 그 실제에 대한 집착이 고통으로 환원되는데, 그럼에도 인간은 실존적인 불안과 고통의 극복을 위해 실재성과 실체관념을 자기소모적으로 확대재생산한다. 이렇게 욕망과 집착에서 연유한 세계관은 허망함을 채우기 위한 행위로 이어져 고통의 질곡을 만들어 낼 뿐이다. 반대로 존재의 비실재성을 통찰하여 욕망하는 주체와 대상, 그 관계 모두가 임시적, 조건적 현상에 불과함을 깨닫는 것으로 고통에서 인간의 해방이 가능하다. 욕망하는 자아의 무상성과 무아성을 철견하여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조준호(2004), 「무명(無明)과 공(空)-욕망의 비실재성에 대한 불교적 통찰」, 『불교학연구』 24, 불교학연구회, 211~213쪽.

85) 자타(自他)를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보는 보살에게는 타인에게 자비를 시현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공성에 대한 자각이란 곧 자기와 타인이 다르지 않음에 대한 인식으로서, 보살은 고통 받는 중생을 동체(同體)로 보고 대비심(大悲心)으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김성철(1999), 「공(空)과 윤리

내면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개인의 욕망만이 아니라, 타자의 문제에도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의미 역시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조신>이 지향하는 의미가 불교적 사유와 접맥된다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인간 존재의 내면에 근거를 두는 만큼 시대와 문화를 넘어선 보편성 또한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4. 나가며

<조신>은 삶에 존재하는 보편적 고통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해소의 방안을 이야기한다. <조신>의 서사는 인과를 따라 애욕으로부터 고통이 연속,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인물이 꿈으로 체험하는 삶의 고통은 내면의 본원적 욕망에 최초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구조적 모순과 같은 외부의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보다, 이렇게 문제의 상황이 인간 내면의 인식 내지 심리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그로부터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조신>의 특징이다. 현재적 관점의 평가 이전에 삶의 고통이란 문제를 이처럼 포착한 것은 텍스트가 놓인 사회문화의 지평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조신>의 의미 지향은 내면을 성찰하여 자신의 부정성을 확인하는 깨달음을 통해 존재의 한계로 인한 근원적 고통의 연쇄를 끊어내는 데 있다.

텍스트의 이러한 의미는 그 문화적, 사상적 토대인 불교적 사유와 결속되어 있다. 그 근간이라 할 대립을 초월하는 인식, 공(空)의 사유에서는 세속이 곧 해탈, 열반과 다르지 않으며, 우열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깨달아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깨달음은 세속의 고통을 부정해 배제하는 초월이 아니라 포용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리킨다. <조신>에서도 꿈과 현실, 세속과 깨달음의 세계가 의존해 연기

---

(倫理)』, 고려대장경연구소, 『공(空)과 연기(緣起)의 현대적 조명』, 고려대장경연구소출판부, 116~117쪽.

(緣起)하면서, 세속의 속박으로부터 해탈의 자유로 인물이 전이(轉移)하는 과정이 서사화되며, 그 계기는 역시 내면의 성찰과 반성적 자각이다. 또한 <조신>은 인물 내면의 현상을 겹쳐두는 특정한 서사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러한 깨달음의 구체적인 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욕망과 대상의 관계 그리고 그 주체인 자아가 불변하는 무엇이 아니라는 것, 그에 따라 나와 나의 것으로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지금의 삶을 해탈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인식의 조건이 더욱 선명해진다.

이와 함께 <조신>의 의미는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과 자비의 실천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타인과 현실의 고통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모색하고 있다. 비록 짧게 서술되지만 뚜렷한 의미를 갖는 인물의 행위로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공감과 실천을 인간의 탐욕을 포함한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윤리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삶의 고통이란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내면에 대한 반성이 적어도 그에 필요한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렇게 현실에 엄존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조신>이 형상화하는 자각(自覺)과 내면의 성찰, 그리고 실천은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인간이나 집단, 문화, 종교, 사상 등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텍스트에 제기된 문제적 양상의 본질과 그것의 극복을 위한 인식과 사유 및 행위가 보편성을 가지고 공명(共鳴)을 일으키기에, <조신>이 지향하는 의미는 시간의 거리를 넘어 현재에도 상기하고 성찰할 의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장효현 외(2007),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1: 傳奇小說』,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강인구 외(2003), 『(譯註) 三國遺事 III』, 이회문화사.  
이가원·허경진 역(2006), 『삼국유사』, 한길사.

### 2. 논문 및 단행본

- 강상순(2009), 「나말여초 전기에 형상화된 사랑의 형식과 그 역사적 의미」, 『우리어문연구』 35, 우리어문학회, 7~47쪽.  
강유환(2008), 「자기원형의 발견과 자아실현의 길-분석심리학으로 읽은 「조신설화」-」, 『국제어문』 42, 국제어문학회, 99~130쪽.  
곽정식(2000), 「<調信傳>의 갈래규정」, 『논문집』 21-2, 경성대학교, 45~60쪽.  
김광순(1990), 『韓國古小說史와 論』, 새문사.  
\_\_\_\_\_ (1991), 「韓·中文學에 나타난 꿈의 受容樣相과 意味志向-調信傳과 枕中記를 中心으로-」, 『동방한문학』 7, 동방한문학회, 17~34쪽.  
김동화(1989), 『佛敎倫理學: 人間學으로서의 佛敎』, 보련각.  
김미령(2005), 「환상공간으로서의 ‘꿈’의 기능」, 『인문학연구』 3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13~136쪽.  
김성철(1999), 「공(空)과 윤리(倫理)」, 고려대장경연구소, 『공(空)과 연기(緣起)의 현대적 조명』, 고려대장경연구소출판부, 109~136쪽.  
\_\_\_\_\_ (2006), 『중관사상』, 민족사.  
김영미(2000), 「불교의 수용과 신라인의 죽음관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20, 한국고대사학회, 145~182쪽.  
김용철(1995), 「<조신>에서 깨달음의 실천지향과 변증법적 삼단구조」, 『한국학연구』 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455~493쪽.  
김정경(2009),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조의 연구: 「조신」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2-4, 한국학중앙연구원, 7~27쪽.  
김종철(1988),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문제」, 다곡 이수봉선생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83~208쪽.  
\_\_\_\_\_ (1995), 「고려 傳奇小說의 발생과 그 행방에 대한 再論」, 『어문연구』 26, 어문연구학회, 529~552쪽.  
김진영(2009), 「佛敎敍事の 作話方式과 傳奇小說의 相關性(II)」, 『어문연구』 61, 어문연구학회, 189~218쪽.

- 김현룡(1984), 『韓國古說話論: 三國遺事 說話를 중심으로』, 새문사.
- 남수영(2006), 「중관학파의 공사상에서 자비의 성립과 완성-『大智度論』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25, 보조사상연구원, 491~530쪽.
- 박일용(1993), 「소설의 발생과 《수이전》 일문의 장르적 성격」, 『조선시대의 애정 소설: 사실과 낭만의 소설사적 전개양상』, 집문당, 51~84쪽.
- 박희병(1995), 「羅麗時代 傳奇小說 研究」,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3~78쪽.
- 설성경(1993), 「조신이야기의 서술구조 분석」, 전규태 교수 회갑기념문집 간행위원회, 『한국문학의 통시적 성찰』, 백문사, 359~372쪽.
- 소인호(2005), 『한국 전기소설사 연구』, 집문당.
- 신연우(2001), 「『三國遺事』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의 분석적 이해」, 『한국민속학』 33, 한국민속학회, 175~198쪽.
- \_\_\_\_\_ (2002), 「曹洞五位의 시각으로 본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의 이해」, 『한국사상과 문화』 18, 한국사상문화학회, 279~300쪽.
- 신재홍(2009), 「<김현감호>와 <조신>의 비극적 삶과 치료적 글쓰기」, 『문학치료 연구』 13, 한국문학치료학회, 301~326쪽.
- 양승목(2014), 「『삼국유사』 속 꿈 화소의 활용 양상과 「조신」의 위상」, 『동양한문학연구』 39, 동양한문학회, 139~166쪽.
- 오대혁(1998), 「『調信傳』의 구조와 형성배경」, 『한국문학연구』 2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원, 349~386쪽.
- \_\_\_\_\_ (2004), 「불교문학의 환상성과 사찰연기설화」, 『불교어문논집』 9, 한국불교어문학회, 5~43쪽.
- \_\_\_\_\_ (2006), 「나말여초 傳奇小說의 형성문제-불교계 전기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4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97~125쪽.
- 유광수(2000), 「만남과 깨달음으로 본 <洛山二大聖 觀音·正趣, 調信>의 의미」, 『연세어문학』 32,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15~146쪽.
- 윤채근(1999),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출판사.
- 이강엽(2012), 「『三國遺事』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條의 삽화 구성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36, 열상고전연구회, 215~248쪽.
- 이강옥(2001), 「『삼국유사』의 세계관과 서술미학」, 『국문학연구』 5, 국문학회, 9~51쪽.
- 이구의(1996), 「『調信』傳의 構成과 意味」, 『한민족어문학』 30, 한민족어문학회, 275~293쪽.

- 이기백(1986),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 이동근(1998), 「<침중기>·<조신전>·<만복사저포기>의 기술방법 비교연구」, 『어문학』 63, 한국어문학회, 165~184쪽.
- 이영무(1989), 『維摩經講說』, 월인출판사.
- 이월영(1989), 「佛家的 꿈 形象 類型의 敍事文學의 展開」, 『한국언어문학』 27, 한국언어학회, 205~233쪽.
- 이윤석(1988), 「調信설화의 문학적 가치에 대한 소고」, 『한국전통문화연구』 4,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67~189쪽.
- 이중표(2005), 「자비의 윤리」, 『불교학연구』 12, 불교학연구회, 2005, 587~608쪽.
- 인권환(2011), 『한국문학의 불교적 탐구』, 월인.
- 임철호(1976), 「調信說話 研究」, 『연세어문학』 7·8,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67~284쪽.
- 임형택(1980), 「羅末麗初의 ‘傳奇’文學」, 『한국한문학연구』 5, 한국한문학회, 89~104쪽.
- 장예준(2014), 「『三國遺事』 소개 <調信>의 교과서 번역 검토」, 『한국문화』 6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정규복(1965), 「幻夢說話考」, 『아세아연구』 8-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21~232쪽.
- 정규식(2004), 「『調信』의 주체와 무소유」, 『국어국문학』 23,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9~73쪽.
- 정범진(1965), 「枕中記研究 -특히 三國遺事 調信說話와 關聯하여-」, 『대동문화연구』 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11~142쪽.
- 정소영(2006), 「『삼국유사』설화에 나타난 인간구원-광덕과 엄장,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조신설화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학회, 289~318쪽.
- 정승석(2011), 「불교적 고관(苦觀)의 추이와 의의」, 『인도철학』 32, 인도철학회, 97~132쪽.
- 정의행(1991), 『한국불교통사: 우리 민중불교사의 복원』, 한마당.
- 정종대(1986), 「檀君 神話의 構造 分析 試考-調信 說話와의 構造的 換置에 關聯하여-」, 『국어교육』, 55, 379~391쪽.
- 정환국(2004), 「나말여초 傳奇의 ‘욕망의 형식화’에 대하여-초기소설의 성립과정에 주목하여-」, 『한문학보』 11, 우리한문학회, 3~29쪽.
- 조동일(1977),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우리말글』 제68집 우리말글학회 (2016.03.31.)

- 조준호(2004), 「무명(無明)과 공(空)-욕망의 비실재성에 대한 불교적 통찰」, 『불교학연구』 24, 불교학연구회, 177~219쪽.
- 조태영(2001), 「傳奇의 세계관과 양식 특질」, 『국문학연구』 5, 국문학연구회, 139~162쪽.
- 조현우(1999), 「夢遊 서사의 現實 認識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5),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의 은유적 이해」, 『한국고전연구』 11, 한국고전연구학회, 186~211쪽.
- 지준모(1975), 「傳奇小說의 嚆矢는 新羅에 있다-〈調信傳〉을 해부함-」, 『어문학』 32, 한국어문학회, 117~134쪽.
- 차용주(1969), 「調信說話의 比較研究」, 『한국문화인류학』 2-1, 한국문화인류학회, 57~73쪽.
- 채용복(1988), 「調信構造의 分析的 考察」, 『어문학』 49, 한국어문학회, 203~217쪽.
- 나카무라 하지메, 남수영 역(2010), 『용수의 중관사상』, 여래.
- 산띠데바, 최로덴 역주(2006), 『(티베트 불교 주석 전통에 따른) 입보리행론譯註』, 하얀연꽃.
- 야지마 요우기찌, 송인숙 역(1992), 『空의 철학: 절대부정 절대긍정』, 대원정사.
- 카지야마 유이치·우에야마 슌페이, 정호영 역(1989), 『空의 論理: 中觀思想』, 민족사.
- 텐진 가초, 박은정·양지애 역(2005), 『(달라이 라마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 『입보리행론』 법문』, 하얀연꽃.
- 프레데릭 J. 스트렝, 남수영 역(1999), 『용수의 공사상 연구: 그 종교적 의미에 대하여』, 시공사.
- E. 프롬 외, 김용정 역(1992), 『禪과 精神分析』, 원음사.

☐ 김영호

☼ 소 속: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 주 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전자우편: hoya3833@nate.com

◎ 논문접수: 2016년 2월 19일

◎ 논문심사: 2016년 2월 22일 ~ 3월 28일

◎ 게재결정: 2016년 3월 28일

<Abstract>

## Seeking the Meaning of <Joshin> -focusing on the relevance of Buddhist Reason-

Kim, Young-ho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meaning and goal of <Joshin>. <Joshin> examines how to relieve the pain that human beings experience. According to <Joshin>, internal desire is responsible for the pain of life. The narration of <Joshin> shows the process that pain results from passion and keeps spreading. The characteristic of <Joshin> is that it seeks to relieve pain, not by pointing out external factors such as structural contradiction, but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oblematic situations result from the inside of a person. The goal of <Joshin> in the social culture of the time is to remove general pain through meditation on the inner self and enlightenment of confirming the negative self.

In addition, the meaning of <Joshin> is closely related to Buddhist speculation. According to its idea of emptiness, the world and pain are not differentiated from moksha and nirvana, and this emptiness is the very consciousness transcending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By realizing this fact, human beings can achieve true liberty. Thus, <Joshin> does not deal with transcendence denying the world, but emphasizes change of recognition embracing it. That enlightenment can be achieved by recognizing the fact that desire and obsession are transitory and self is also eventually no-self. Based on it, the condition of reaching moksha is to notice the fact that there are no objects for us to be obsessed with. And <Joshin> does not neglect the problems of reality but seeks to

resolve them. <Joshin> suggests sympathy and practice as the ethical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of reality, claiming that practicing mercy not discriminating self from others can contribute to removing the pain in reality.

keywords: Joshin, Buddhism, the idea of emptiness, no-self, mercy